웹프 팀플 최종 발표대비용

안녕하세요? 저는 웹 프로그래밍 팀 프로젝트 그룹 C의 최종 발표를 맡은 @@@입니다.

저희 조는 나의 맛집 일기라는 주제로 웹 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윤주은, 박지영, 윤세현, 한웅재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현 단계에서 Main 페이지와 웹페이지의 전체적인 틀은 윤주은님, Rating 메뉴는 한웅재님, Categorizing 페이지는 박지영님, Mapping 페이지는 윤세현님이 맡아 제작하였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자는 생각에서 나아가 나의 맛집 일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Main)

우선 메인 페이지입니다. Background-image 태그를 통해서 배경화면을 이미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메뉴 부분은 hover 태그를 사용하여 마우스가 올라가면 다른 메뉴는 display : none 되도록 하였습니다. (메뉴 위에 커서를 휙휙하면서 hover 작동을 보여줌)

페이지의 콘텐츠에는 메인 박스와 위젯 박스가 있고, 메인 박스에는 주요 내용이, 위젯 박스에는 구글 지도를 퍼오기 하여서 언제든지 위치를 찾아보거나 (큰 지도 보기 클릭해서 구글 지도로 넘어가기) 구글 지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메인 페이지의 주요 내용은 기능 소개인데요, a 태그를 사용한 수동 슬라이드로 구성해서 화살표나 아래 점을 누르면 rating, categorizing, mapping 메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화살표, 한 번은 점을 누르면서 슬라이드쇼 이동)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페이지의 크기가 줄어들면 위젯 박스가 메인 박스 아래로 내려가도록 구성했습니다. (창 크기를 작게 해서 위젯 박스가 아래로 내려간 것을 보여주기)

(Rating 메뉴로 이동 후)

(평가하지는 말고 아래 설명 먼저)

: Rating 메뉴에서는 사용자가 방문한 음식점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록 가능한 특성으로는 식당 이름과 지역, 음식의 국적, 점수, 코멘트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잘못 입력했거나 직접 예시문구를 지울 필요 없이 name을 입력하는 곳을 클릭하면 바로 내용이 지워지도록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 그 가게의 location과 그 가게에서 먹은 음식의 국적을 콤보 박스를 이용해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Point는 별점을 매기는 곳으로 1부터 5까지의 라디오 버튼을 입력하면 그 숫자만큼 별을 입력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그 음식에 대한 서술적인 평가를 원할 경우 comments에서 문자들을 입력 받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eset버튼은 말그대로 입력한 모든 데이터들을 초기화 시키는 버튼입니다.

평가를 모두 작성하고 나면 submit 버튼을 눌러 아래 영역으로 입력한 평가를 넘겨줍니다.

넘겨진 데이터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든 평가들을 각 배열에 입력 받고 각 배열에 저장된 값을 한 텍스트로 붙여서 출력시키도록 했습니다.

(설명이 끝났으면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 submit 누르고 또 다른 값을 넣어서 submit 누르고

출력된 모습을 보여준다.)

데이터 출력은 이런 식으로 되며 먼저 입력한 데이터는 아래로 밀려나게 됩니다.

(categorizing 메뉴로 이동 후)

CATEGORIZING 페이지는 학교 근처의 음식점 약 20곳을 기준에 따라 분류한 페이지입니다.

기준은 페이지 오른쪽에 위치한 메뉴바를 통해 고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오른쪽 메뉴 바 클릭 후 스크롤해 음식점 목록을 보여준다.)

첫번째 RATE 메뉴를 누르면 카카오맵을 기준으로 한 별점 순으로 음식점들이 나열됩니다.

두번째 LOCAL 메뉴를 누르면 학교를 기준으로 한 거리순으로 음식점들이 나열됩니다.

마지막 NATIONALITY 메뉴를 누르면 Japanese food, Chinese food, Mexican/Indian food와 같이 국가 별로 분류된 음식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음식점을 고를 때 누구나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는 해당 음식점의 음식 사진을 각각 넣어두고, 그 위에 음식점 명과 메뉴에 따라 별점이나 거리를 적어 두었습니다.

(RATE 메뉴, LOCAL 메뉴를 눌러 쓰여진 별점과 거리를 보여준다.)

또한 각각의 음식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당 음식점의 사진을 클릭할 시 관련된 링크로 이동하여 위치, 자세한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음식점 사진을 클릭하여 연결된 카카오맵 링크로 이동하는 걸 보여준 뒤, 카카오맵 창은 닫는다.)

(mapping 메뉴로 이동 후)

Mapping 페이지는 성남시에 속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중 원하는 곳을 클릭하면, 바로 지도로 이어지고, 그 구에서 자기가 방문한 맛집들의 위치를 지도로 한 눈에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커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식당의 이름이 떠서, 식당의 위치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를 표시할 div를 나누고, 지도의 중심좌표, 확대 레벨, 종류 등을 설정하여 지도를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커를 표시할 부분의 좌표와 식당 타이틀을 여러가지 입력해주고, 마커의 이미지와 크기를 설정하여 지도 위에 표시해 주었습니다.

(아쉬웠던 점)

지금까지 저희 팀이 만든 웹페이지를 보셨습니다. 팀원들 모두 아무래도 아직 배우지 않은 기능도 있고 잘 구현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처음에 구상했던 부분과 달라진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메인 페이지를 맡은 주은 님은 슬라이드쇼가 자동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었는데 자바 스크립트 타이밍 이벤트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 수동 슬라이드로 만든 점, categorizing 부분을 드롭다운 메뉴로 구성해서 정렬 기준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이미 만들어진 메뉴를 수정하기 어려워서 포기한 것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Rating 페이지를 맡은 웅재님은 처음에는 평가를 자바스크립트의 prompt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줄 것 같아 html의 form을 이용해서 입력 데이터들을 받도록 했습니다. 평가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던 기술적 한계로는 아직 php를 배우지 않아 입력한 데이터들은 그 사이트가 열려 있을 때만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메뉴에 가거나 새로고침 할 경우 입력 받은 데이터들은 초기화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php까지 배울 기회가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 로그인기능과 사용자와 서버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제작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categorizing 페이지를 맡은 지영님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if 문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싶었으나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해 분류하게 된 점이 아쉽고, 조금 더 다양한 범위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모아 분류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거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된다면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이벤트를 넣어보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Mapping 페이지를 맡은 세현님은 지도 위에 여러 음식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구현하는 게 힘들 거라고 예상하여서 구글 지도 링크를 음식점 별로 첨부할 예정이었으나, 팀원들과의 토의를 통해 새로운 구현 방식을 알게 되었고,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를 참고하여 원하는 방식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개발 시간이 부족하여 더 다양한 지역의 맛집을 알아보고 지도에 나타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웹 프로그래밍 그룹 C의 발표였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 30초정도 정적 ~~~ 없으시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